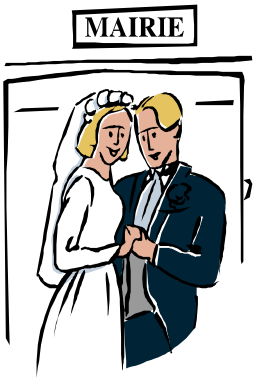

호적등본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에서도 얼마 안 되는 주민관리 시스템 「호적등본」이 이번 달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이 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수속을 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 「호적 등본」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수속을 하기 위해 「호적 등본」이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나의 호적 등본은 1 쌍의 부부가 하나의 단위가 되어 만들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같은 호적에 이름이 올라 갑니다. 그 아이가 결혼하면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원래의 호적에서 빠져 새 호적을 만듭니다. 호적 등본에는 생년월일이나 결혼한 날, 결혼한 상대의 생년월일, 아이가 태어난 날 등을 차례차례로 써내려 갑니다. 한 장으로 하나의 가족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일본인과 결혼한 경우 당신 배우자의 호적 등본을 보면 배우자나 아이의 이름은 크게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외국인인 당신의 이름은 배우자의 란에 작게 쓰여 있을 뿐입니다. 호적 등본에 실리는 것은 일본인 만입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이혼해 아이를 혼자서 기르고 있는 사람은 비자 갱신 시에 「아이의 호적 등본을 내세요」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호적 등본을 떼는지 몰라 곤란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호적 등본은 지금 살고 있는 주소와는 완전히 별개의 시마치무라에서 관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주소와 본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는?

이 경우, 우선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아이의 주민표를 지금 살고 있는 곳의 관공서에서 발급받습니다. 이 때 「본적을 기재한 것을 발급받고 싶다」고 말 하세요.. 그러면 주민표에 아이의 「본적」이 실려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본적이 지금 살고 있는 시마치무라와 같은 곳이라면 다행입니다. 곧바로 같은 관공서에서 본적과 아이의 이름을 쓰고 호적 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본적이 다른 시마치무라일 경우 우송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본적과 함께 「～ (입관수속 등, 호적 등본이 필요한 이유) 에 사용하니까 누구의 호적 등본을 1통 보내 주세요」라고 쓴 편지, 당신 주소를 써서 90 엔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 1 매, 「정액 소액 우편환(우체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를 450 엔×필요한 매수 (450 엔의 소액 우편환 1 매에 대해 수수료 100 엔), 신분 증명으로서 외국인등록카드의 양면 복사를 본적이 있는 시마치무라의 관공서 시민과에 보냅니다.

대개 일주일간 후에 반송되어 옵니다. 호적 등본을 받으면 제출하기 전에 복사해서 보관해 둡시다. 다음에 필요한 때에 복사본이 있으면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수속도 일본어를 읽고 써야 하니 신뢰할 수 있는 일본인 친구나 FICEC 와 같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읍시다. (해설 행정 서사 마에다 미호)

www.ficec.jp/foreign/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샤론상「마이 젓가락 」통판의 일부를 의연금

힘내자 일본! 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FICEC 의 일본어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샤론씨는 대만 출신의 한 아이의 어머니. 아이를 키우면서 모국인 대만으로부터 마이 젓가락이나 에코 젓가락을 수입해 스스로 작성한 홈 페이지에서 판매 중 입니다. 이번 지진 재해에서는 그녀도 큰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재민들의 괴로운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무엇인가 이재민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그렇게 생각한 샤론씨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젓가락 매상의 일부를 재해지에 기부하기로 결정해 4 월 17 일에 의연금을 보냈습니다. 현재도 그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이 젓가락 에코 젓가락 숍@Lahers Home Shop Inc. http://hashi.lahers.jp/）

공부는･･･「국제어린이 클럽」에서 실력향상！

새로운 학년, 즐겁게 공부합시다! 과자도 있고 수다도 떨 수 있어 아이들끼리도 사이좋게 될 수 있어요.
일시 : 매주 토요일 10 : 00～12 : 00
대상자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
학습내용 : 학교 숙제부터 일본어 공부 등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에 맞게 맨투맨
장소 :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비용 : 무료입니다.
조금 멀어 혼자서는 교류센터에 다닐 수 없는 자녀분은 어른도 같이 오세요. 자원봉사자의 여유가 있으면 어른도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자녀분의 공부가 끝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외국적시민의 눈・이상한 일본인의 풍습

● 리포트 사카이 유카

올 4 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S 씨가 「고등학교는 도시락을 가져 가는 거예요? 」라고 물은 적이 있다. 「??? 」. 그녀의 출신국, 중국에서는 차가운 밥을 먹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점심은 포장마차에서 구입. 가족이 입원하고 있을 때는 도시락으로 가정의 맛을 전한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플라스틱의 런치 박스에 샌드위치나 과일 등 간단한 것을 넣어 팔고 있다. 학교의 식사 풍경도 Zip 락에 크래커나 치즈, 초콜렛 등 간식과 같은 도시락이다.
생각하면 일본의 도시락은 세계 중에서도 특별할지도 모른다. 적은 양이지만 반찬도 여러가지. 적・록・황으로 컬러풀하고 「꽉」차있으며 영양 밸런스도 중시하고 있다. 가격도 280 엔의 「노리벤」부터 시니새(오래되고 전통있는)일본요리점의 맛까지 일본과 서양 중화풍으로 종류도 풍부하다. 가게에서 팔리고 있는 도시락 뿐만이 아니라 보육원, 유치원, 학교, 혹은 소풍이나 운동회, 꽃놀이나 하이킹, 해수욕, 관혼상제 등의 이벤트에서도 가정에서 만드는 도시락과는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지내 왔다.
점심의 휴식 시간이 짧기도 하지만 레스토랑에서 차분히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간편한 도시락을 이용한다. 최근에는 캐릭터벤(어린이용으로 캐릭터를 본뜬 것), 도시락 남자(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남성)가 유행하고 있다.
도시락상자는 보온 기능이 붙은 것,컬러풀한 것, 형태도 사이즈도 여러 가지. 이러한 도시락상자를 사용하면 부실한 반찬도 맛있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다. 재일 외국인에게는 일본식의 도시락 만들기는 조금 당황할 지도 모른다. 매일 하는 것이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냉동식품을 이용하거나 전날 저녁 식사의 나머지를 이용하거나 해서 가정의 맛과 애정을 도시락에 담으면 어떻겠는가?
FICEC 의 스탭에게는 오랜 세월 도시락 만들기를 해 온 슈퍼 세프가 많이 있다.
FICEC 의 생활 상담은 쉽고 간단. 꼭, 도시락 만들기의 요령을 물어 보세요.

●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 분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최종페이지를 봐 주세요